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셀프리더십,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

최재희**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자기 자신의 표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신체적 행위, 감정의 표현, 제스처, 소리 등 비언어적 수단들을 이용하여 더 많은 소통을 이루어나간다.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암시적 의미를 표현할 때 결정적 기능을 하는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요소들은(Devito, 1985), 다양한 의미가 내포된 일련의 기호체계를 지니고 있으며(김지영 외, 2013), 언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주고(오미영, 정인숙, 2005), 더욱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된다. Birdwhistell(1970)은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하며 의사 소통은 35% 이하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65% 이상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소통의 수단은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며, 특히 비언어적 체계로 소통하는 예술영역의 무용 교육에서는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무용은 자기 신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교육으로서 무용지도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견되는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성경희, 박인실, 2014). 이와 관련하여 허은숙(2009)은 제스처(gesturw), 신체의 자세(posture), 눈맞춤(eye contact), 고개 끄덕임(nodding), 미소(smiling)등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활용은 높은 교육환경과 무용성취 능력을 향상 시킨다고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은 학습자의 수업 이해도, 학업성취도 향상, 몰입을 위한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03816).

** (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yellow9561@naver.com

선행 변인으로서(김정인, 2015; 김지영, 주형철, 윤인애, 2013; 박준화, 2003; 이경탁, 이희욱, 2010; 이수연, 2016; 이진주, 2018; 이태훈, 2014), 넓은 공간에서 신체적 접촉이 주로 이루어지는 무용 교육 현장에서 지도자와 학습자 간의 긍정적 대인관계의 친밀감 형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관점은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은 효율적인 수업 만족과 성취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교수 행동 중의 하나로서, 지도자와 학습자 간 신뢰와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이것은 서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주로 비언어적 체계로 진행되는 무용 교육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무용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구체적 탐색과 이에 대한 교육적 측면의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현 사회는 빠르게 다분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조직사회에서는 개인의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 각각 개인의 문제는 물론 진로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확고한 능력을 지니는 것으로서,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인재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동시에 자신을 이끌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예지, 2016),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길러진다(최은수 외, 2013). 따라서 개인의 성과 및 조직사회의 발전에 기여되고, 창의적 행동과 팀워크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최소빈, 2012). 특히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최고의 무용 수행을 위해 자신을 리드하고 목표를 세워 훈련하는 무용 전공 대학생들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오늘날 대학 교육은 산업인력구조의 다양한 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사회진출을 위한 개인 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 무용 전공 대학생 대다수는 자기 적성이나 재능 및 예술적 능력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 부족으로, 전공 불일치, 학업 의지의 약화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김유경, 2017). 더욱이 실기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학업과 공연을 위해 할애되는 시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과 태도 등을 점검하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기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무용 수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동시에 학생 개인의 셀프리더십 상승은 대학 생활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학습자의 셀프리더십 수준의 상관관계 연구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활용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지도자 학습자 간의 관계 향상은 물론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구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과 셀프리더십, 대학 생활의 적응 관계를 탐색하여 선행적 요인과 결과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능력과 전공자들의 셀프리더십 및 대학 생활 만족의 관계를 구명하여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지도자의 교수 방법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은 셀프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은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셀프리더십은 대학 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활용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무용전공자들의 셀프리더십 및 대학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당초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3인이 미리 사전협조를 구한 대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내용과 목적, 기재 방법과 응답 시 유의 사항을 차분히 설명하고, 응답하게 하여 현장에서 바로 회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바, 이에 자료수집을 온라인 설문조사로 전환하여 전국 4년제 5개 대학 무용전공자 300명을 대상으로 2020. 6. 15 - 8.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 중 27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273부가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N=273)

특성	수준	빈도	비율(%)
성별	남	36	13.1
	여	237	86.9
학년	1학년	63	23
	2학년	74	27.1
	3학년	71	26
	4학년	65	23.9
전공	한국무용	95	34.7
	발레	29	10.6
	현대무용	97	35.5
	실용무용	52	19
경력	5년미만	36	13.1
	5년이상-10년이하	81	29.6
	10년이상-15년이하	94	34.4
	15년이상	62	22.7
총		273	100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도구는 조사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대상과 연구의 특성에 맞도록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조사 도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의 회의를 통하여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각 항목과 셀프리더십, 대학 생활 만족 변인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도출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설문 문항은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다. 설문지구성은 개인적 특성(4문항),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능력(18문항), 셀프리더십(13문항), 대학생생활적응(20문항) 총 60문항이다.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도구는 Sundaram과 Webster(2000)이 제시한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하위요인은 신체언어(9문항), 신체적 외모(5문항), 의사언어(4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854~.912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 되어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 척도는 Manz & Sims(1987)가 개발하고 사용하였던 설문을 기초로 구성하고 김유경(2017)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무용 교육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은 자기목표설정(4문항), 자기보상(5문항), 자기관리(4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820~.919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Baker & Siryk(1989)이 제작한 대학생 적응도 검사를 배현정(2012)이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문항을 발췌,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은 정서적 적응(5문항), 학문적 적응(5문항), 사회적 적응(5문항), 신체적 적응(5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824~.897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을 실시하여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공동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회전방식은 직각회전 방식의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 방법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각 변인별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 결과는 <표 2>, <표 3>, <표 4>와 같다.

<표 2>와 같이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는 2.42~3.48로 나타났으며, 분산은 17.31~24.89까지 분포하였다. 총 누적분산은 66.41%로 나타났다. KMO값은 .856, 요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결과 $X^2=2325.066$, $df= 232$, $p<.001$ 의 값을 나타내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추출된 14개 문항은 3개 하위요인으로 신체언어 5문항, 신체적 외모 5문항, 의사언어 4문항으로 분류되었다. 변인별로 Cronbach's α 값은 .856~.904로 나타나 .7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2〉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 결과

설문 문항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신체언어	신체적외모	의사언어
신체언어 A 1	.827	.257	.187
신체언어 A 6	.789	.094	.272
신체언어 A 4	.729	.316	-.021
신체언어 A 2	.710	.328	.152
신체언어 A 8	.690	.137	.115
신체적외모 A 11	.199	.765	.130
신체적외모 A 13	-.031	.757	-.042
신체적외모 A 12	.141	.734	.102
신체적외모 A 10	.197	.725	-.129
신체적외모 A 14	.112	.611	.188
의사언어 A 16	-.120	.321	.827
의사언어 A 18	.176	.265	.784
의사언어 A 15	.120	.157	.696
의사언어 A 17	.109	.121	.591
신뢰도	.904	.832	.856
고유치	3.98	3.11	2.72
분산(%)	23.99	22.90	17.31
누적(%)	24.89	48.10	65.41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861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2325.066$, $df=232$, $Sig=.000$

〈표 3〉과 같이 셀프리더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는 2.49~3.61로 나타났으며, 분산은 11.33~16.44까지 분포하였다. 총 누적 분산은 66.41%로 나타났다. KMO값은 .881, 요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2211.089$, $df=234$, $p<.001$ 의 값을 나타내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추출된 12개 문항은 3개 하위요인으로 자기목표설정 4문항, 자기보상 4문항, 자기관리 4문항으로 분류되었다. 변인별로 Cronbach's α 값은 .810~.867로 나타나 .70이상으로 신뢰도가 양호하게 확보되었다. 〈표 4〉와 같이 대학 생활 적응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는 1.58~2.83로 나타났으며, 분산은 13.18~23.65까지 분포하였다. 총 누적 분산은 60.11%로 나타났다. KMO값은 .824, 요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chi^2=7244.494$, $df=66$, $p<.001$ 의 값을 나타내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추출된 10개 문항은 3개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적응 4문항, 신체적 적응 3문항, 사회적 적응 3문항으로 분류되었다. 변인별로 Cronbach's α 값은 .814~.824로 나타나 .70이상으로 신뢰도가 양호하게 확보되었다.

〈표 3〉 셀프리더십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 결과

설문 문항	셀프리더십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관리
자기목표설정 B 3	.797	-.019	.184
자기목표설정 B 2	.756	.220	.176
자기목표설정 B 1	.729	.155	-.146
자기목표설정 B 4	.710	-.065	.269
자기보상 B 7	.100	.751	.087
자기보상 B 8	.233	.745	.212
자기보상 B 9	.107	.740	.429
자기보상 B 6	.071	.623	.100
자기관리 B 10	.135	.189	.745
자기관리 B 13	.199	.173	.740
자기관리 B 12	-.031	.143	.623
자기관리 B 11	.141	-.154	.574
신뢰도	.867	.847	.810
고유치	3.61	3.379	2.49
분산(%)	16.44	15.35	11.33
누적(%)	34.43	29.79	61.12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81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2211.089$, $df=234$ Sig=.000

〈표 4〉 대학생활적응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 결과

설문 문항	대학생활적응		
	정서적적응	신체적적응	사회적적응
정서적적응 C 5	.813	.232	.093
정서적적응 C 3	.795	.145	-.016
정서적적응 C 2	.761	.193	.200
정서적적응 C 4	.705	.157	.136
신체적적응 C 18	.157	.827	.006
신체적적응 C 17	-.126	.671	.282
신체적적응 C 20	.202	.669	-.103
사회적적응 C 15	.172	.106	.733
사회적적응 C 13	.123	-.054	.724
사회적적응 C 12	-.095	.063	.591
신뢰도	.824	.855	.814
고유치	2.83	2.55	1.58
분산(%)	23.65	21.27	13.18
누적(%)	23.65	44.92	60.11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24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7244.494$ $df=66$ Sig=.000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 완료된 자료수집의 자료 분석은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Windows용 SPS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류를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요인 분석은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KMO(kaiser-Meyer-Olkin) 지수 검정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sphericity test)을 실시 하였으며, 내적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둘째, 각 요인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Correlation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셀프리더십,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와 방향성을 알아보기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 의사언어, 자기목표 설정, 자기 보상, 자기관리,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사회적적응 요인 간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기준인 .80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회귀분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표 5>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1	2	3	4	5	6	7	8	9
신체언어	1								
신체적외모	.435**	1							
의사언어	.159	.194	1						
자기목표설정	.314**	.315**	.364**	1					
자기보상	.272**	.245**	.238**	.505**	1				
자기관리	.342**	.282**	.358**	.327**	.398**	1			
정서적적응	.424**	.507**	.495**	.428**	.279**	.435**	1		
신체적적응	.050	.381**	.385**	.216**	.179**	.155*	.471**	1	
사회적적응	.132	.039	.095	-.146*	.062	.099	.272**	.174*	1
M	3.39	3.77	3.65	3.45	3.67	4.23	3.53	3.37	3.88
SD	.53	.59	.62	.57	.67	.65	.54	.56	.65

** $p < .01$

2.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자기목표설정 에 미치는 영향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목표설정 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는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목표 설정 요인에 $F=145.434$,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672$ 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는 자기목표 설정을 67.2%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의사언어는 자기 목표설정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셀프리더십 자기목표설정 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수	자기목표설정			
	b	SE	B	t
상수	2.701	.218		13.063
신체언어	.402	.231	.461	11.083***
신체적외모	.675	.312	.635	13.846***
의사언어	-.098	.125	.131	-.358
R^2/F	.672/145.434***			

*** $p<.001$

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자기 보상에 미치는 영향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 보상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과 같이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는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 보상 요인에 $F=723.984$,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296$ 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는 자기 목표 설정을 29.6%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셀프리더십 자기 보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수	자기보상			
	b	SE	B	t
상수	1.917	.321		13.063
신체언어	.342	.231	.340	3.982***
신체적외모	.295	.267	.323	4.236***
의사언어	.004	.121	.005	.073
R^2/F	.296/723.984***			

*** $p<.001$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의사언어는 자기 목표 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과 같이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 의사언어는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관리 요인에 $F=17.873$,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381$ 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 의사언어는 자기관리를 38.1%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셀프리더십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수	자기관리			
	b	SE	B	t
상수	1.714			5.013
신체언어	.057	.238	.049	1.989*
신체적외모	.217	.178	.212	2.766***
의사언어	.158	.295	.196	2.326**
R^2/F	.381/17.873***			

* $p<.05$, ** $p<.01$, *** $p<.001$

3.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활적응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수	정서적 적응			
	b	SE	B	t
상수	2.701	.380		13.063
신체언어	.416	.276	.404	8.323***
신체적외모	.324	.452	.307	5.932***
의사언어	.210	.320	.219	2.421**
R^2/F	.430/67.336***			

* $p<.05$, *** $p<.001$

〈표 9〉와 같이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 의사언어는 대학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정서적 적응 요인에 $F=67.336$,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430$ 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 의사언어는 정서적 적응을 43%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신체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신체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과 같이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는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신체적 적응 요인에 $F=29.751$,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354$ 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는 정서적 적응을 35.4%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의사언어는 신체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활적응 신체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수	신체적 적응			
	b	SE	B	t
상수	2.546			9.788
신체언어	.501	.432	.511	9.173***
신체적외모	.298	.298	.375	3.262**
의사언어	-.159	.067	-.065	-1.143
R^2/F	.354/29.751***			

** $p<.01$, *** $p<.001$

다.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 사회적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과 같이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는 대학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사회적적응 요인에 $F=24.889$,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218$ 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는 사회적적응을 21.8%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의사언어는 신체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활 적응 사회적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수	사회적 적응			
	b	SE	B	t
상수	1,389			5,219
신체언어	.190	.176	.193	3.400***
신체적외모	.375	.287	.372	6.135***
의사언어	-.003	.037	-.003	-.050
R^2/F	.218/24,889***			

*** $p < .001$

4.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 셀프리더십이 대학 생활의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와 같이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관리는 대학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정서적 적응 요인에 $F=20.277$,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236$ 로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관리는 사회적적응을 23.6%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적응 정서적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수	정서적 적응			
	b	SE	B	t
상수	1,104			3,751
자기목표설정	.191	.190	.202	3.174***
자기보상	.381	.289	.396	6.196***
자기관리	.234	.126	.137	2.170*
R^2/F	.236/20,277***			

* $p < .05$, ** $p < .01$, *** $p < .001$

나.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의 신체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신체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과 같이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신체적 적응 요인에 $F=23.760$,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239$ 로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목표 설정, 자기관리는 신체적 적응을 23.9%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관리는 신체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적응 신체적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수	신체적 적응			
	b	SE	B	t
상수	2,847			8,479
자기목표설정	.407	.309	.351	5.629***
자기보상	-.033	.109	-.038	-.587
자기관리	.270	.294	.302	4.686***
R^2/F	.239/23.760***			

*** $p < .001$

다.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와 같이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관리는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사회적 적응 요인에 $F=23.987$,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367$ 로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목표 설정, 자기보상, 자기관리는 사회적적응을 36.7%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4〉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수	사회적적응			
	b	SE	B	t
상수	1,491	.343		6,006
자기목표설정	.262	.276	.321	5.155***
자기보상	.291	.255	.351	5.604***
자기관리	.047	.189	.232	2.518**
R^2/F	.367/23.987***			

** $p < .01$, ***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셀프리더십,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구명하여 미래 사회적 요구를 부합하는 무용예술인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들과 비교,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은 셀프리더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 중 신체언어와 신체적 외모는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목표 설정, 자기 보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언어, 신체적 외모, 의사언어는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신체언어와 신체적 외모, 의사언어를 높이 지각할수록 무용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용지도자의 신체적 움직임이나, 제스처, 긍정적인 신체 표현 등과 같은 신체언어는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신체적 움직임의 모방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적인 신체언어는 무용 전공 대학생들 스스로 자기 목표의 설정과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 시켜 자신 스스로 통제하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지도자의 매력적인 신체적 외모는 상대를 설득, 이해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Buller, Burgoon & Woodall, 1996),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무용 전공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행요인으로서, 긍정적 영향 관계를 보고한 문지연, 백의선(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과 무용 전공 학생들의 학습 태도의 유의한 영향 관계를 검증하여 보고한 박소희(2021)의 연구는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 태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검증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무용지도자의 카리스마, 자세, 태도, 이미지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수업몰입과 무용 만족을 끼치며,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한 연구들은(김소희, 2019; 류민정, 2001) 무용 전공 학생들의 선호를 이끌어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유추하였다.

신체를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무용 교육 과정에서 무용지도자의 손짓이나, 긍정적인 눈빛, 긍정적인 고갯짓과 손을 치켜세우는 등의 신체언어 사용은 무용전공자에게 자신감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 가치 있고 힘든 훈련에 대해서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목표 설정을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무용지도자는 호감을 높이는 신체적 외모나 복장, 바른 자세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무용전공 대학생에게 무용지도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된다.

이상과 같이 무용전공 대학생들은 스스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상을 하며, 힘든 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등, 자기 자신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기관리를 하는 행위들은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바, 작은 신체적 언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의 개발과 훈련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은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하위변인 중 신체언어와 신체적 외모, 의사언어는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신체언어와 신체적 외모 및 의사언어를 높이 인식할수록 대학 생활의 적응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서적, 신체적 적응 과정에서 자기 능력과 스타일, 선호도에 따라 지도자의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는 무용 수행의 심리적 기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무용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기대는 무용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적절한 사용은 무용전공 대학생의 심리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나아가 자기효능감, 만족감, 자신감 등을 높이는 변인으로 보고한 연구(이진주, 차

수정, 2018; 이주연, 2016)를 뒷받침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미, 한혜원(2009)은 무용몰입, 성취감, 만족감으로 더 나아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무용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연구(김명숙, 고장완, 2014; 이하정, 박미라, 윤지원, 2022)의 공통분모는 지도자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다.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태도 등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으로써, 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지도의 한계성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영향력은 학습자에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무용에 대한 이해와 실기 능력, 무용 원리 및 해석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과 대학생활 적응을 다룬 연구가 다소 부족하여, 유사 개념인 무용지속 의도의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를 보면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신체언어가 무용지속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안정훈(2016)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이는 무용 수업에서 경험하는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영향은 힘든 연습 과정을 이겨내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동기부여를 높여주며, 성장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신체를 통하여 지도해야 하는 무용 교육의 특성상 무용지도자가 손짓이나 눈빛, 고갯짓과 같은 적극적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사용은 무용전공 대학생에게 최고의 무용 수행 상태를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넘어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의 자신감,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며(송시윤, 2010), 이는 더 나아가 무용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기목표 설정, 자기 보상, 자기관리는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자기목표와 자기 보상을 높이 인식할수록 대학 생활의 적응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상을 하는 형식이나, 힘든 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자기 보상과 자기 자신의 일이 결과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기목표 설정의 리더십은 대학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셀프리더십의 긍정적 요소인 행동중심 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은 대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생활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 정서적 적응에 도움을 주고 부정적 정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발표한 김규진(2021)의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이 대학생의 학업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연구(박주미, 2017; 현보람, 2012), 셀프리더십 하위전략 중 대학생활 적응을 가장 높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자연보상 전략으로서(김진영, 2013),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수행한 후 자기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행동은 대학 생활에 성공적인 전략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는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셀프리더십이 목표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적인지적 전략을 활용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학생 스스로 노력과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양성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김주희, 이형룡(2021)에 의하면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 성취 수준이 높아지면 대학 생활의

학습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성취 수준은 셀프리더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긍정적 생각은 자신감을 높이고 이러한 자신감은 무용성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바(배수진, 2015), 무용전공 대학생에게 목표설정과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높여 자신감 및 무용성취 능력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용 수행과정에서 전공자들은 연습 관리나 신체 관리가 잘되지 않을 때 중도 포기가 높아지며(김희진, 2016), 이것은 무용학과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무용을 지속하는데 방해가 되는 환경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대학 생활의 부적응에 놓여 있는 무용전공 대학생으로 하여금 무용을 삶의 일부로서 소중한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용전공자들 스스로 동기와 의지를 확고히 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셀프리더십 함양을 강조하고(윤소영, 2022), 셀프리더십의 행동 중심 전략과 같이 무용 전공 대학생 스스로 공부나 연습, 근력 향상, 자기관리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할 일들을 세분화하고 과제를 수행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셀프리더십은 무용 전공 대학생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 창의성, 성공적 무용수행을 위한 훈련 등 무용 환경과 공연상황에서 대응해야 하는 행동 중에서 꼭 필요한 필수역량이다. 무용전공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목표설정을 통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개발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무용지도자와 무용 전공 대학생 간의 교육과정에서 발생 되는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은 질적 양적으로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즉, 지도자와 학습자 간 영향을 수반하고,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나 행동, 형태, 규칙, 상호작용하는 공간, 수업환경으로 비롯되는 영향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 능력을 바탕으로 무용전공 대학생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에 대한 능력과 가치에 높은 평가를 내리며, 대학생활의 정서적, 신체적 적응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무용전공자들의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무용전공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향상은 물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며, 결과를 토대로 무용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소재 무용 전공 4년제 5개 대학 무용전공자 300명을 대상으로 2020. 6. 15 - 8. 30일까지 약 3개월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는 무용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능력

의 하위요인 신체언어, 신체적 외모, 의미 언어는 정서적 적응, 사회적적응, 신체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자기목표 설정, 자기 보상은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의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은 무용전공 대학생 개인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생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는데 기여되는 바,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은 무용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수 능력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교수, 학생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수업의 질과 교육적 효과의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대학생활 만족과 셀프리더십의 자발적 의지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적절한 활용과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 방법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무용교육 현장에서의 학습자들의 셀프리더십 제고가 요구된다. 아울러 무용전공 대학생 개인 스스로 셀프리더십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각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그에 고려된 잠재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셀프리더십의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용전공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은 무용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다루어져야 할 핵심적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 참고문헌

- 오미영, 정인숙(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 Baker, R. W. & B. Stryk(1989). *SACQ :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irdwhistell, R. (1970). *Kinesics and contex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김정인(2015).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무용몰입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지영, 주형철, 윤인애(2013). 무용교육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능력, 지도자 신뢰 및 무용몰입의 구조적 관계.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1(3), 1-24.
- 김주희, 이형룡(2021). 항공 승무원학과 대학생의 성취 목표 지향성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셀프리더십과 학업 몰입의 이중 매개효과. *한국관광연구학회*, 35(6), 195-207.
- 김하연(2018). 무용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 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유경(2017). 무용 전공 학생들의 교수 지지와 셀프리더십, 진로 개발 능력, 취업역량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희진(2016). 대학무용수들의 심리적 요인이 무용 지속과 중도 포기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영미, 한혜원(2009). 무용 전공 대학생의 무용몰입 경험이 자기효능감과 무용 활동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19, 1-18.
- 김지영, 주형철, 윤인애(2013). 무용교육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능력, 지도자 신뢰 및 무용몰입의 구조적 관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3), 1-24.
- 김소희(2019). 무용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 원활성에 따른 몰입, 성취, 학교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명숙, 고장완(2014). 대학생의 학습 참여가 지각된 창의성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재교육학회*, 13(1), 83-106.
- 김민정(2006). 예술 중고등학교 무용 교사의 교수 행동이 학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형섭(2010). 무용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학생들의 무용몰입과 무용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규진(2022). 현대무용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학교 지원의 매개효과.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0(2), 23-43.
- 문지연, 백의선(2016). 무용전공자들의 다이어트 경험이 무용몰입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정신인문학연구*, 17(2), 283-311.
- 박주미(2017). 무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감성지능, 전공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박소희(2021). 무용 교사의 언어적·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학습태도 및 수업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운옥(2010). 무용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자리 관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배수진(2015). 통합예술 활동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현정(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표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성소영(2012). 대학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과 인지적 유연성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3), 171-180.
- 성경희, 박인실(2014).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사용이 학생들의 무용 몰입 및 무용성취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8(1), 55-68.
- 서예지(2016). 미용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 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송시운(2010). 직업무용수의 성취 목표 성향과 자기관리가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훈(2016). 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무용전공생들의 감정반응 및 무용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4(1), 121-138.
- 이하정, 박미라, 윤지원(2022).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학 풍토, 교수-학생 상호작용, 직업탐색,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3), 1737-1750.
- 이경탁, 이희욱(2010). 교수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수업 및 교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영교육연구, 64, 91-117.
- 이수연(2016). 초등학교 무용 교사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수업몰입 및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윤소영(2022). 무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긍정심리 자본 및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진주, 차수정(2018).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무용 전공 대학생의 무용몰입 및 무용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연구, 36(2), 267-291.
- 이주연(2016).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무용 자신감, 무용몰입, 무용 능력성취의 관계. 한국무용학회지, 33(2), 29-40.
- 이진주(2018). 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몰입 및 무용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태훈(2014). 남자무용지도자의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행동이 학생들의 무용몰입과 무용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최소빈(2012). 무용전공자의 셀프리더십이 창의적 행동 및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4), 849-859.

- 허은숙(2009). 생활무용 프로그램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지도자 서비스 평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현보람(2012). 한국무용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자기관리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Manz, C. C., & Sims, H. P. Jr(1987). Leading workers to lead themselves: The external leadership of self-managing work tea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2, 106-128.
- Sandaram., D. S., & Webster, C. (2000). The role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service encounters. *Journal of Service Marketing*, 14(5), 378-391.

논문투고일 2024. 02. 14.
심사일 2024. 02. 27.
심사완료일 2024. 03. 07.

Relationship between Dance Instructors' Nonverbal Communication, Self-leadership,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Choi , Jae-he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nonverbal communication, self-leadership,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college students in dance. The survey was conducted 300 students specializing in dance at four-year universities nationwide from June 15, 2020 to August 30, 2020. In the actual analysis data from 273 students were used, and the data was processed using SPSS 18.0 for Windows and Amos 18.0 for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nonverbal communic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leadership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second, self-leadership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Keywords: Nonverbal communication(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 Self-leadership(셀프리더십), College life adjustment (대학생활적응), Dance education(무용교육), Dance(무용)